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rain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The Role of Family Impact as a Mediator -

Soo Kyung Park^{1#}, Sung Min Lee²⁺, Jeong Ha Lee², So Ri Kim²

¹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oedaemun-gu, Seoul, Korea

²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oe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family impact in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rain and post-traumatic growth(PTG) among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This study surveyed 200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run by welfare center in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ve family impac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valuated parenting strain and PTG, while the negative impact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These findings revealed that it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to enhance the positive aspect of family to improve PTG of participants.

Key words: development disability, mother, parenting strain, post-traumatic growth, family impact

1. 서론

2016년 우리나라 등록 발달장애 인구를 보면, 지적장애인 195,283명, 자폐성 장애인 22,853명으로 2011년에 비해 34,800명이나 증가하였다(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7). 그중에서도 특히, 성인기 이전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지적 장애가 23%, 자폐성 장애 63%로 지체 장애 0.1%에 비해 훨씬 높다(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7).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적장애인의 65.3%, 자폐성 장애인의 82.9%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또한, 발달장애 가족은 발달장애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등으로 인해 특수한 양육환경에 처하기 쉽다(Chandravanshi, *et. al.*, 2017; Padden & James, 2017).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녀의 어머니와 가족이 갖는 양육부담감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 자녀를 양육할 때보다 더 크다(Hirst & Baldwin,

[#] The 1st author: Soo Kyung Park, Tel. +82-2-2123-2921, Fax. +82-2-2123-8656, e-mail. psk2016@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Sung Min Lee, Tel. +82-2-2123-2921, Fax. +82-2-2123-8656, e-mail. good.oidos@gmail.com

1994; So & Son, 2013).

일반적으로 양육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신체적 피로, 심리적 긴장, 사회적 문제 등을 말한다(Mount & Dillon, 2014; Kim, *et. al.*, 2016).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 부담을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Montgomery, 1979; Lee, *et. al.*, 2006; Singh, *et. al.*, 2017)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관적 부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 부담은 주로 대상자를 양육하는 개인이 받는 대인관계의 방해, 시간의 할애, 재정적 지출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만 주관적 부담은 수치심, 낙인, 죄책감, 분노, 슬픔, 걱정과 같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일반적으로 객관적 부담보다 해결하기 힘들다(Reinhard, 1994). 발달장애인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양육 부담의 차원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객관적인 양육 부담보다 주관적인 양육 부담이 양육제공자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Lee, *et. al.*, 2006), 이러한 구분이 양육자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h, *et. al.*, 2017).

지금까지의 장애인 자녀의 양육 부담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양육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우울 등 개인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어 왔다(Hirst & Baldwin, 1994; So & Son, 2013; Chandravanshi, *et. al.*, 2017).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로부터 얻게 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와 보상도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Winefield & Harvey, 1994; Pickett, *et. al.*, 1997; Hastings, *et. al.*, 2005; Kim,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부양 부담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와는 별도로 강점관점에서 중요시하는 긍정적인 변화, 지지, 보상 등에 주목해왔다(Greenberg, *et. al.*, 1994; Winefield & Harvey, 1994; Pickett, *et. al.*, 1997; Schwartz & Gidron, 2002). 최근에는 지속

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긍정적인 측면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으로 개념화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이나(Thornton & Perez, 2006; Cadell, 2007) 정신장애인의 희망(Turner-Crowson & Wallcraft, 2002)을 다루었을 뿐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비장애 형제들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Park, 2017), 발달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낮고 부모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어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취약하다(Wolf, *et. al.*, 1998). 그러나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육이 가족들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은 아니며 가족에 대한 의미나 가족에 대한 고마움 등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난다. 선행연구 결과, 가족응집력이나 가족관계 친밀도, 가족 지지 등과 같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은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Figley, 1988; Yoon & Yi, 2014; Wei Zhang, *et. al.*, 2015), 외상 사건 이후 가족 지지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개인은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ufman, *et. al.*, 2004). 따라서 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인 경험이 양육자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관련한 개입전략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것 외에도 외상 후 성장과 같은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갖는 양육 부담과 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과정에서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 역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장애로 인해 가족이 경험

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

양육 부담은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양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태를 말한다(Kim, *et. al.*, 2016). 최근 연구에서는 양육 부담을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부정적 결과인 객관적 부담과 내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적 부담은 자녀가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방해나 혼란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역할 긴장,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 방해, 이웃과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반면, 주관적 부담은 수치심, 낙인, 죄책감, 분노, 슬픔, 격정과 같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부담으로 객관적 부담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해소되기 더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inhard, *et. al.*, 1994).

양육 부담은 자녀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경험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특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은 다른 유형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높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달리,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Kim, 2015). 또한,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적인 문제행동(Griffith & Hastings, 2014), 자녀의 발달 지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결여는 부모의 우울감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가중한다(Chandravanshi, *et. al.*, 2017).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은 지적인 능력의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성의 결여 등 자립에 어려움이 따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경험하는 양육 부담이 줄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지적장애인은 13.5%, 자폐성 장애인은 24.5%로 나타났고, ‘가족 중 부모가 생활을 돕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65.3%, 자폐성 장애인이 82.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양육자와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장애 유형별 양육부담의 결과를 나타낸 선행연구를 보면, 장애 유형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다른 유형보다 더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양육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2008). 또한, 발달장애인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대처기술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가족이 갖는 양육부담감이 더 크다(Park & Yang, 2013).

2.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개인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은 생명의 위기를 겪거나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인 외상으로부터 그 이전의 상태를 뛰어넘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수준을 의미한다(Powell, *et. al.*, 2003). 특히 ‘성장’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으로도 정의하는데(Tedeschi & Calhoun, 2004), 이때 외상 후 성장은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의미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삶의 철학적 변화로 구분된다(Barakat, *et. al.*, 2005).

한편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만성적인 양육부담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일반적인 건강상태 뿐 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의 포함한 넓은 차원의 정신건강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Hirst & Baldwin, 1994; So & Son, 2013). 특히 자폐성향의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과 불안을 측정된 결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녀의 부모보다 더 높았다. 이는 생리학적으로도 혈압과 콜티졸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dden & James, 2017). 이외에도 지적장애 자녀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한 설문에서 79%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였다(Chandravanshi, *et. al.*, 2017).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양육부담은 우울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이렇게 형성된 우울감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판단능력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80년대부터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선행되었다(Wenzlaff, *et. al.*, 1988).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처럼 극심한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일 수록 심각한 정신적 질병과 병리적 증상을 경험하며, 이는 외상후후유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Berry, *et. al.*, 2013; Morrison & Wells, 2003; Grubaugh, *et. al.*, 2011; Neria, *et. al.*, 2002)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담감을 외상사건으로 바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와 인식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었는데 주로 양육에 극심한 스트레스의 이면에서 발견하는 부모의 성장(Gupta & Singhal, 2004), 장애 자녀를 키우는 양육환경이 만족감과 희망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거나(Yi, *et. al.*, 2010; Lee, *et. al.*, 2010; Chadwick, *et. al.*, 2013; Park & Joo, 2014), 장애 자녀 양육이 성숙과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2013; Hastings, *et. al.*, 2005).

3.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

일반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학교를 비롯한 안정적인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제

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부담감은 여전히 지속된다(You, *et. al.*, 2011). 예를 들어,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이나 학교 입학 시 장애인단 요구로 인한 낙인감,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한 부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Yang & Park, 2013). 학령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느끼는 양육 부담은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학습, 교우관계, 사춘기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Emerson, 2003). 또한,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보다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이 더 심하기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나(Park, 2017) 비장애 형제, 자매의 학교적응문제(Yang & Park, 2013)와 같은 가족 문제를 일으킨다. 장애가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양육 부담을 비롯하여 가족 내 역할 긴장,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 방해와 같은 객관적 양육 부담감에서 출발한다. 더불어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의 축소, 지역사회 이웃과의 갈등문제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Yang, 2017).

그러나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험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양육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경험하게 된다(Kim, 2012). 최근 강점관점과 인권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가족의 '조절'과 '적응' 역량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인해(Kim & Park, 2007) 양육 부담이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Taunt & Hastings(2002)는 장애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 형제, 확대가족 모두가 자녀로 인해 세상과 타인에 관한 배움, 행복감과 만족감, 사회에 관한 관심 등 긍정적인 측면이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은 가족 구성원 개인의 외상 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돌봄 만족 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가족원의 외상 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Yoon & Park, 2012), 중도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Yoon & Yi, 2014).

가족은 외상을 경험하는 대상이기도 하며, 사회적 지지의 주요 원천으로서 치료적 기능과 병리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실제로 가족의 치료는 외상적 스트레스 증상을 탐지하고 직면하여 외상상황에 대한 갈등 해결을 촉진하기도 한다(Figley, 1988). 나아가 가족의 ‘희망’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회복을 함께 지원하기도 한다(Turner-Crowson & Wallcraft, 2002). 특히 자폐성 장애인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초기 단계에서 가족은 지원 과정을 통해 ‘감정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이 가지는 신념이나 안정적인 영향이 강할수록 자폐성 장애인 어머니는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경험하며, 이는 곧 인지 과정과 자기공개 과정을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진행된다(Wei Zhang, et. al., 2015). 이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은 장애인에게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하게 돌봄을 받거나, 사회적 지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Kaufman, et. al., 2004). 따라서 사

회적 지지의 출발점이자 바탕으로서, 가족은 개인의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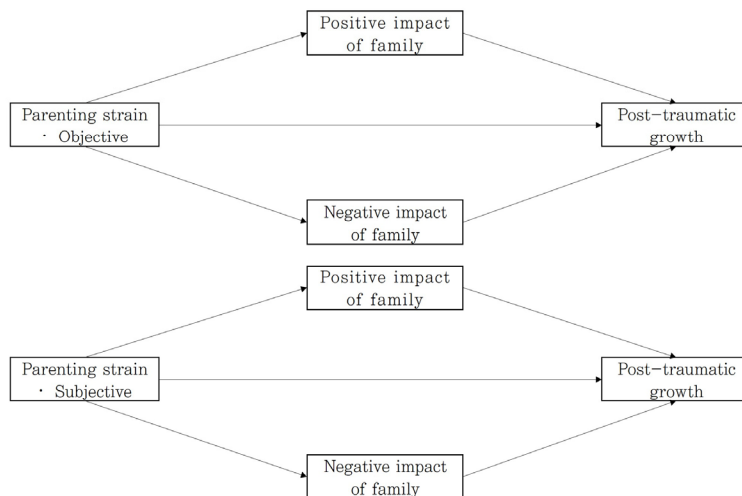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가족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은 유의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1-1.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객관적 양육 부담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은 낮을 것이다. 1-2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주관적 양육 부담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가족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1.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가족 영향은 어머니의 객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2.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가족 영향은 어머니의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Control Variables: Moth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Income, Religion, Child: Age, Gender, Type of disability, Degree of disability

Figure 1. Research model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부정적 가족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1.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부정적 가족 영향은 어머니의 객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부정적 가족 영향은 어머니의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연구 대상자와 조사과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인천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과 치료센터 등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다. 조사대상자 모집을 위해 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 기관 중 조사를 허락한 곳에 연구진이 방문하여 사전 제작된 포스터와 공고문을 각 기관에 부착하였다. 설문조사는 참여 의사를 밝힌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된 장소(상담실, 교육실)에서 진행하였다. 우선, 조사 교육을 받은 연구자가 본 연구 설문지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부모들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자기 보고식(Self-Administered)으로 진행하였다. 6세에서 21세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총 22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목적 맞게 부모의 성별에 ‘남성’이라고 답한 25명을 제외하고, ‘여성’이라고 답한 200명의 데이터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진이 소속된 기관에서 인간연구 대상 관련 사전 연구윤리(IRB) 승인을 받았다.

3.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은 Tedeschi & Calhoun(1996)이 개발한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의 21문

항을 국문으로 변환한 한국판 K-PTGI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심리학 전문가 및 원척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진이 객관성 있는 번역과정을 거쳤으며 국내에서 300명의 대학생과 성인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Song, *et. al.*, 2009).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 문항이 구성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 ①자기지각의 변화, ②대인관계 깊이 증가, ③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④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0=경험이 없음부터 5=매우 많이 경험까지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8$ 이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은 주로 양육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직접적인 요인들로서 Brannan, *et. al.*(1997)이 개발한 CGSQ(Caregiver Strain Questionnaire Scale) 척도를 직접 번안하여 측정하였으며,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Brannan, *et. al.*, 1997) 특히 양육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부담은 ①개인 시간의 방해 ②의무를 놓치거나 방임 ③지역사회에 문제가 증가 ④가족 구성원의 무료함 ⑤신체적 고통 ⑥다른 가족에 적은 관심 ⑦경제적 부담 ⑧사회적 고립 ⑨가족관계 방해 ⑩사회적 활동 방해와 같이 주로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개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부담은 ①슬프거나 불행한 감정 ②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③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④죄책감 ⑤피곤함과 부담의 느낌 ⑥지출 발생 ⑦분개한 감정 ⑧화남 ⑨당황스러움 ⑩자녀와의 관계의 취약성 ⑪가족에게 부정적 영향과 같이 장애 자녀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포함한다. 설문 구성 항목은 총 21문항으로 양육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객관적, 주관적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거의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객관적, 주관적인 부담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객관적 양육 부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2$, 주관적 양육 부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2$ 였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가족의 부정적 영향력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받게 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Trute & Hierbert-Murphy(2002)에 의해 개발된 Family Impact of Childhood Disability Scale(FICD)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이 경험하는 슬픔이나, 기쁨에 관한 종단연구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가족이 경험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검증되었다(Trute, *et al.*, 2007). 가족 영향력 척도(FICD)는 긍정적 가족 영향 5문항, 부정적 가족 영향 10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차원으로 구성되거나 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총 87가정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영향에 대해 응답하였고 내적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였다(Trute & Hierbert-Murphy, 2002).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은 5문항으로 ①장애 자녀로 인한 경험이 우리 가족을 신에게 더욱 다가 가게 함 ②장애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의 개선 ③장애 자녀로 인한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임 ④자녀의 장애가 부모에게 긍정적 발전을 가져옴 ⑤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함과 같이 주로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은 10문항으로 ①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 필요 ②가족의 일상에 뜻하지 않은 방해 ③장애 자녀로 인한 경제적 비용부담 ④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제한 ⑤가족 내 만성적인 스트레스 ⑥가족에게 주요한 휴일을 취소하거나 미룸 ⑦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음 ⑧장애 자녀로 인해 친척에게 연락을 주저함 ⑨장애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긴장감 발생 ⑩자녀의 장애로

인해 중요한 구매를 미루게 됨 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가족 영향은 장애 자녀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개인·가족·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받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가족 영향과 부정적 가족의 영향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627$, Cronbach's $\alpha = .874$ 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외상 후 성장을 포함한 심리적인 특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어머니의 요인들과 자녀의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나이, 장애 자녀가 속한 가정의 소득,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태, 자녀의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이 양육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발달장애 부모의 양육환경에서 발생하는 부담감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진행되는 데 나이, 교육수준, 월수입, 결혼상태, 종교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Cohrs & Leslie, 2017), 자녀의 요인으로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았다(Padden & James, 2017).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빈도 및 백분율, 주요 변수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 부담의 차원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Hayes, 2013)를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동시에 최대 10개까지 병렬관계에 있는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부정적 가족 영향의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시에 투입하여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

과의 관계에서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독립변수로 설정된 양육 부담의 하위차원으로 객관적, 주관적 차원을 구분하여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매개 분석을 2회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수별 비교

1)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나이는 40대가 137명(69.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 35명(17.8%), 50대 이상이 25명(12.7%)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전문대학 졸업~대학원 이상이 146명(74.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를 확인해 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178명(90.8%)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월수입은 100~200만 원이 27명(13.7%)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200~400만 원이 91명(46.2%)으로 가장 높았으며 400~500만 원

이상이 79명(40.1%)으로 분석되었다. 종교가 있다고 답한 어머니는 119명(59.8%)이었다.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132명(66.0%)으로 여자 68명(34.0%)에 비해 거의 두 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가 100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67명(33.5%) 중학교 33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가 24명(12.1%)이었으며 중복장애가 아닌 경우가 174명(87.9%)이었다. 자녀의 장애 정도는 경증이 44명(24.4%)으로 중증 136명(75.6%)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2) 주요 변수의 비교

주요 변수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객관적 부담의 전체 평균은 4점을 기준으로 2.02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부담은 전체 평균 1.96으로 주관적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은 4점을 기준으로 2.70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은 2.99로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 and child

Variables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Mother	Age (N=197)	30s or younger	35	17.8
		40s	137	69.5
		50s or more	25	12.7
	Education (N=197)	High school or less	51	25.9
		College or more	146	74.1
	Marital status (N=196)	Living with a partner	18	9.2
		Living without a partner	178	90.8
	Income (10000won) (N=197)	100~200	27	13.7
		200~400	91	46.2
		400 or more	79	40.1
Religion (N=199)	Without religion	80	40.2	
	With religion	119	59.8	
Child	Gender (N=200)	Boy	132	66.0
		Girl	68	34.0
	School (N=190)	Kindergarten~Elementary	100	50.0
		Middle school	33	16.5
		High school	67	33.5
	Type of disability (N=198)	Without other disability	174	87.9
		With other disability	24	12.1
	Degree of disability (N=180)	Mild	44	24.4
Severe		136	75.6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n major variables

Variables	Mean	Min	Max	SD
Objective strain	2.02	.00	4.00	.98
Subjective strain	1.96	.36	3.73	.73
Positive impact of family (FICD)	2.70	1.00	4.00	.56
Negative impact of family (FICD)	2.99	1.00	4.00	.59
Post-traumatic growth (K-PTGI)	2.63	.31	5.00	.93

긍정적 영향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한편 외상 후 성장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63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통상적으로 0.9를 넘지 않으면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ukaka, 2012). 또한, 상관계수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며, 각 변수 간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844($p < .0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주관적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 $-.300$ ($p < .01$),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 $.678$ ($p < .01$), 외상 후 성장 $-.187$ ($p < .01$)의 변수들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

구 사회학적인 요인으로 나이, 교육 정도, 결혼상태, 월 수입, 종교를 자녀의 요인 중 어머니의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외상 후 성장 점수가 평균 46.5 ($SD=14.2$)로 종교 없는 집단 35.2 ($SD=1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별, 학교,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투입한 결과 자녀의 장애 유형에 중복인 경우가 평균 42.9 ($SD=14.7$)로 자녀의 장애가 중복이 없다고 답한 경우의 35.6 ($SD=14.7$)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2. 매개효과 분석

1) 객관적·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먼저 객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통제변수인 종교와 자녀 장애 정도는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종교가 없는 경우 외상 후 성장이 낮았고(Coeff= $-.7980$, $p < .001$), 자녀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 외상 후 성장은 높았다(Coeff= $.3630$, $p < .05$).

한편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인 부담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낮게 나타났다(Coeff= $-.2601$, $p < .01$). 통제변수로는 종교가 없는 어머니 집단이 외상 후 성장이 낮았던 반면(Coeff= $-.7783$, $p < .001$), 자녀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 외상 후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Coeff= $.3723$, $p < .05$).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n major variables

Variables	Objective strain	Subjective strain	Positive impact of family (FICD)	Negative impact of family (FICD)	Post-traumatic growth (K-PTGI)
Objective strain	1				
Subjective strain	.783**	1			
Positive impact of family (FICD)	-.033	-.300**	1		
Negative impact of family (FICD)	.844**	.678**	-.015	1	
Post-traumatic growth (K-PTGI)	.060	-.187**	.513**	.049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TG

Variables		Category	N	Mean	SD	t/F
Mother	Age (N=197)	30s or younger	35	41.3	12.9	.128
		40s	136	42.3	15.6	
		50s or more	24	40.9	13.5	
	Education (N=197)	High school or less	51	40.7	15.6	-.674
		College or more	144	42.3	14.6	
	Marital status (N=196)	Living with a partner	176	42.0	14.4	-.106
		Living without a partner	18	42.4	18.5	
	Income (10000won) (N=197)	100~200	27	40.5	17.3	1.062
		200~400	91	40.7	14.5	
		400 or more	77	43.8	14.3	
Religion (N=199)	Without religion	79	35.2	13.2	-5.612***	
	With religion	118	46.5	14.2		
Child	Gender (N=200)	Boy	130	42.4	14.5	.601
		Girl	68	41.1	15.5	
	School (N=190)	Kindergarten~Elementary	100	41.8	15.2	.160
		Middle school	33	43.3	15.8	
		High school	65	41.5	13.9	
	Type of disability (N=198)	Without other disability	24	35.6	14.7	-2.258*
		With other disability	172	42.9	14.7	
	Degree of disability (N=180)	Mild	43	39.3	15.8	1.692
		Severe	135	43.7	14.8	

*p<.05; **p<.01;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Subjective strain and PTG (n=171, bootstrap=5000)

Variables		Coeff	t	Coeff	t	
Control variables	Mother	(Constant)	3.9724	5.4672***	4.4318	6.2262***
		Age	-.0189	-1.1513	-.0182	-1.1338
		Education	.0302	.1686	.0278	.1741
		Income	.0426	.7078	.0270	.4589
		Marital status	-.1979	-.6792	-.1860	-.6553
		Religion	-.7980	-5.5156***	-.7783	-5.5607***
	Child	Gender	.0564	.3907	.0667	.4763
		Age	-.0254	-1.2811	-.0269	-1.3423
		Type of disability	-.3346	-1.4739	-.2961	-1.3423
		Degree of disability	.3630	2.1990*	.3723	2.3207*
Independent variables	Objective strain	-.0339	-.4786			
	Subjective strain			-.2601	-2.9131**	
R ²		.2090		.2477		
MSE		.7584		.7213		
F		4.2264***		5.2688***		

*p<.05; **p<.01; ***p<.001

2) 객관적·주관적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관계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가족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관계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먼저

객관적인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가 없는 경우(Coeff=-.3617, p<.001), 자녀의 장애 유형이 중복일 때(Coeff=-.3579, p<.01) 긍정적 가족 영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Subjective strain and positive/negative impact of family (n=171, bootstrap=5000)

Variables		Positive Family Impact		Negative Family Impact		Positive Family Impact		Negative Family Impact		
		Coeff	t	Coeff	t	Coeff	t	Coeff	t	
Control variables	Mother	(Const)	2.7963	6.4108***	2.0518	7.7110***	15.3569	7.3700***	20.6489	5.8216***
		Age	.0025	.2584	.0011	.1822	.0121	.2595	-.0304	-.3825
		Education	-.2005	-1.8634	-.0620	-.9452	-.8907	-1.7473	-1.4587	-1.6811
		Income	-.0127	-.3520	-.0212	-.9617	-.0964	-.5600	-.1944	-.6639
		Marital status	.1405	.8033	.1160	1.0871	.8652	.8308	2.3598	1.6686
		Religion	-.3617	-4.1651***	-.0797	-1.5049	-1.7057	-4.1629***	-2.2317	-3.1997**
	Child	Gender	.0490	.5659	.0282	.5335	.1926	.4699	.9278	1.3301
		Age	-.0132	-1.1126	-.0104	-1.4398	-.0633	-1.1182	-.1256	-1.3048
		Type of disability	-.3579	-2.6257**	-.1423	-1.7113	-1.7934	-2.7768**	-.5472	-.4978
		Degree of disability	.2481	2.5042*	.0856	1.4159	1.2776	2.7206**	1.7576	2.1986*
In-dependent variables	Objective strain	-.0289	-.6796	.4923	18.9578***					
	Subjective strain					-.9278	-3.5495***	5.2793	11.8653***	
R ²		.2051		.7204		.2654		.5179		
MSE		.2733		.1017		6.1811		17.9100		
F		4.1289***		41.2261***		5.7808***		17.1897***		

*p<.05; **p<.01; ***p<.001

향이 낮은 반면 자녀의 장애가 중증일 때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높았다(Coeff=.2481, p<.05).

다음으로 객관적인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인 양육 부담이 높을수록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eff=.4923, p<.001). 반면 어머니와 자녀의 요인 모두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인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종교가 없는 집단이 긍정적인 가족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Coeff=-1.7057, p<.001). 자녀의 요인에서는 자녀의 장애 유형이 중복일 때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Coeff=-1.7934, p<.01), 장애 정도가 중증일 때 가족의 긍정적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1.2776, p<.01). 또한, 주관적인 양육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의 관계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부정적인 가족 영향이 낮았으며(Coeff=-2.2317, p<.01), 자녀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부정적인 가족의 영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eff=1.7576, p<.05).

주관적인 양육 부담이 높을수록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은 감소하며(Coeff=-.9278, p<.001), 반대로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eff=5.2793, p<.001).

3) 객관적·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영향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설정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어머니의 요인 중 종교가 없는 집단이 외상 후 성장이 낮았으며(Coeff=-.7980, p<.001), 특히 객관적 양육 부담과 주관적 양육 부담 모두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로 투입된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 중에서는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력만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유의하였다(Coeff=.6996, p<.001), (Coeff=.1232,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negative impact of famil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subjective strain and PTG (n=171, bootstrap=5000)

Variables		Coeff	t	Coeff	t	
Control variables	Mother	(Constant)	2.2570	2.6454**	2.2587	2.8150**
		Age	-.0205	-1.3735	-.0193	-1.2947
		Education	.1632	.9853	.1574	.9561
		Income	.0490	.8906	.0415	.7567
		Marital status	-.2825	-1.0580	-.3247	-1.2162
		Religion	-.5543	-3.9607***	-.5378	-3.8553***
	Child	Gender	.0254	.1928	.0303	.2313
		Age	-.0173	-.9507	-.0173	-.9570
		Type of disability	-.1010	-.4730	-.0678	-.3223
		Degree of disability	.1994	1.2914	.1910	1.2391
Independent variables	Objective strain	.0441	.3789			
	Subjective strain			-.2177	-1.8078	
Mediators	Positive impact	.6996	5.8228***	.1232	4.8092***	
	Negative impact	-.1174	-.5962	.0136	.9054	
R ²		.3514		.3560		
MSE		.6298		.6252		
F		7.1321***		7.2800***		

*p<.05; **p<.01; ***p<.001

p<.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긍정적인 가족의 영향력만이 두 가지 차원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효과를 가지 것으로 특히, 독립변수인 주관적 양육 부담과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주관적 양육 부담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력이 주관적인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영향의 매개 효과

본 연구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다중매개 분석하였고 결과는 <Figure 2>와 <Figure 3>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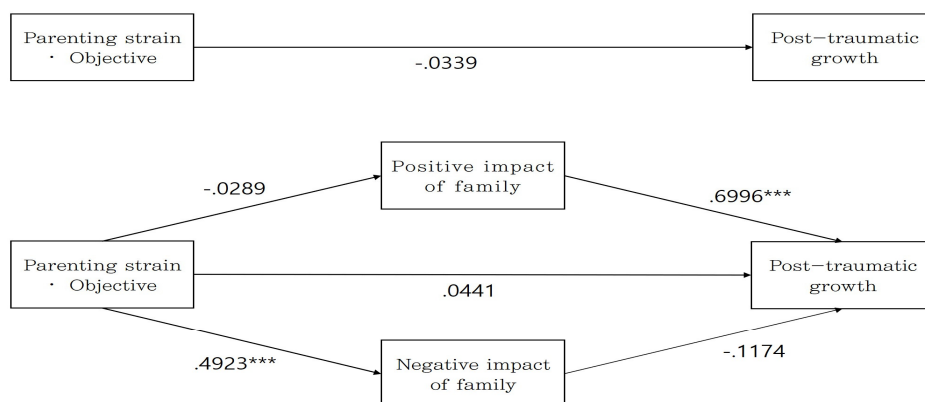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on Effects of Family Impa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Strain and P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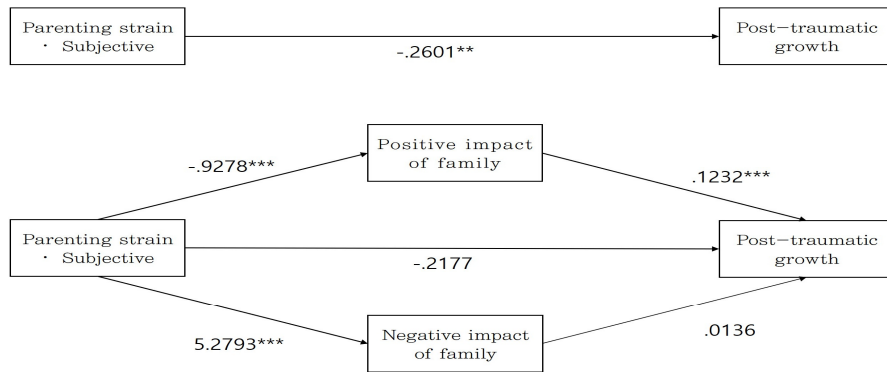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on effects of Family Impa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train and PTG

먼저, <Figure 2>와 <Table 5>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객관적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객관적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객관적 부담과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과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oeff=.4923, $p < .001$).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이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던 반면(Coeff=.6996, $p < .001$)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객관적 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였다. 한편, <Figure 3>과 <Table 5>에서 제시한 주관적 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양육 부담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Coeff=-.2601, $p < .01$). 다음 단계로 주관적 양육 부담은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고(Coeff=-.9278, $p < .001$),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Coeff=.1232, $p < .001$). 한편 주관적 양육 부담은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Coeff=5.2793, $p < .001$), 가족

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만이 주관적 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부담 부담은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객관적 ·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 그리고 가족이 경험하는 총 효과 및 직접 효과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다중매개 분석을 시행한 후 총 효과 직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객관적 양육 부담은 총 효과, 직접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총 효과만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에서 사용한 PROCESS macro는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95% 신뢰구간의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PROCESS macro에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가족 영향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양육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만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LCI=-.2001, ULCI=-.0436).

Table 8. Total, direct/mediation effects of the variables

Total and Direct effects	Effect	se (Boo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Objective parenting strain → PTG (Total effect)	-.0339	.0709	-.1740	.1061
Objective parenting strain → PTG (Direct effect)	.0441	.1164	-.1858	.2741
Subjective parenting strain → PTG (Total effect)	-.2601	.0893	-.4364	-.0838
Subjective parenting strain → PTG (Direct effect)	-.2177	.1204	-.4556	.0201
Mediation effects	Effect	se (Boo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Objective parenting strain → Positive family impact → PTG	-.0202	.0331	-.0878	.0459
Objective parenting strain → Negative family impact → PTG	-.0578	.1037	-.2686	.1438
Subjective parenting strain → Positive family impact → PTG	-.1143	.0396	-.2001	-.0436
Subjective parenting strain → Negative family impact → PTG	.0719	.0825	-.0855	.2354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양육 부담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 모두 개인의 외상 후 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 중 주관적 양육 부담이 외상 후 성장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만을 지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발달장애인 자녀로 인한 시간의 할애, 가정의 예기치 못한 지출, 사회적인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부담 요인은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느끼는 수치심, 불안, 화난 감정 등과 같이 감정적(Emotional) 문제와 같이 주관적 부담 요인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이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Zoellner, 2006)와 일치한다.

둘째, 객관적 양육 부담이 높을수록 가족이 받는 부정적 영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객관적인 양육 부담이 가족 고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높인다

는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Yang, 2017). 한편, 주관적 양육 부담은 가족이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력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수치심, 화난 감정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주관적 양육 부담은 가족의 삶에서 발견한 가치, 긍정적 발전, 부부간 결속력 증대와 같이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저해하는 동시에 가족갈등이나 비용, 스트레스, 사회관계 소원 등의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 부부간의 갈등과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인 문제, 가족갈등과 같은 결과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Hastings, *et al.*, 2005; Blacher & McIntyre, 2006).

셋째,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장애 자녀로 인해 가족이 받은 영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만이 어머니의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관적인 양육부담감이 장애 자녀로 인해 가족이 받는 긍정적인 부분을 약화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외상을 경험한 개인

이 가족이나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결과와 (Kaufman, *et. al.*, 2004)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양육 부담을 감당하는 어머니 개인의 성장이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기존에 시행된 대부분 발달장애인 양육 부담 관련 개입방법은 대처기술(Coping skill)개발이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확대와 같이 양육자 개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 개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주 양육자인 어머니 개인의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는 양육 부담과 장애 자녀로 인해 가족이 받는 영향,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토대로 보다 세분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어머니를 위한 정책은 주로 돌봄 지원, 바우처 사용,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객관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마저도 예산, 인력, 공급기관의 제한으로 발달장애 가족들은 장기간 대기하거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관적 부담에 해당하는 감정 문제, 가족 역량 및 상호작용 등과 같이 정서적 요인에 중점을 둔 지원은 발달장애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더욱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달장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은 주로 여가와 친교 활동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Kim, *et. al.*, 2016).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어머니의 정서적인 부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규명했으며, 이 둘의 관계를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이 매개하는 효과가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긍정적인 면을 지원하는 것이 어머니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므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경험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30조에(가족 및 보호자지원) 명시된 가족 중심성, 가족지원과 관련한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특수성을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지원 전문가와 가족 중심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족 유대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는 가족 구성원들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함을 실천하는 TSL 가족치료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2010). 가족을 위한 지원이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한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족 단위의 개입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높일 수 있는 활발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은 대부분 소아암 환자나, 전쟁 참전 용사 등과 같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대상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또한 외상이라고 표현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부담으로 표현되며,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외상처럼 인식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변화하지 않는 양육환경에서 양육 부담을 직접 경감시키는 지원책과 함께 가족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방안도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특수한 양육환경에 대처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개입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실천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면하는 실천가들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들이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을 모색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천가의 도움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불안, 우울, 경제적 문제 등과 같이 부정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실천가의 관점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가족프로그램이나 개인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Schwartz & Gidron, 2002). 따라서 실천가들은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려는 시각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증명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갖는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경기, 인천지역의 복지관과 센터로부터 수집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서울 및 전국 주요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가족이 받는 영향,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부모에 관한 종단연구는 향후 개인이 경험하는 가치의 확장이나 삶의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rakat, L. P., M. A. Alderfer, and A. E. Kazak. 2005. Posttraumatic Growth in Adolescent Survivors of Cancer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1(4): 413-419.
- Berry K., S. Ford, L. Jellicoe-Jones, and G. Haddock. 2013. PTSD Symptom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Psychosis and Hospitalization: Review of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 526-38.
- Blacher, J. and L. L. McIntyre. 2006. Syndrome Specificity and Behavioural Disorders in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ultural Differences in Family Impac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3): 184-198.
- Brannan, A. M., C. A. Heflinger, and L. Bickman. 1997. The Caregiver Strain Questionnaire: Measuring the Impact on the Family of Living with a Child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5(4): 212-222.
- Cadell, S. 2007. The Sun always Comes Out after It Rains: Understanding Posttraumatic Growth in HIV Caregivers. *Health & Social Work*. 32(3): 169-176.
- Chadwick, D. D., H. Mannan, G. E. Iriarte, R. Mcconkey, P. O'Brien, F. Finlay, A. Lawlor, and G. Harrington. 2013. Family Voices: Life for Family Carer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Ireland.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6(2): 119-132.
- Chandravanshi, G., K. K. Sharma, C. S. Jilowa, P. S. Meena, M. Jain, and O. Prakash. 2017. Prevalence of Depression in Mothers of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A Cross-sectional Study. *Medical Journal of Dr. D.Y. Patil Vidyapeeth*. 10(2): 156-161.
- Cohrs, A. C. and D. L. Leslie. 2017. Depression in Parents of Children Diagnose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Claims-Based Analysi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7(5): 1416-1422.
- Emerson, E. 2003.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1): 51-58.
- Figley, C. R. 1988. A Five-phas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mili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 127-141.
- Greenberg, J. S., J. R. Greenley, and P. Benedict. 1994. Contributions of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o Their Familie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5: 475-480.

- Griffith, G. M. and R. P. Hastings. 2014. 'He's Hard Work, but He's Worth It'. The Experience of Caregivers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ur: A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7(5): 401-419.
- Grubaugh A. L., H. M. Zinzow, L. Paul, L. E. Egede, and B. C. Frueh. 2011. Trauma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6): 883-899.
- Gupta, A. and N. Singhal. 2004. Positive Perception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ia Pa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Journal*. 15(1): 22-35.
- Han, Seong Hee, Hye Jun Park, and Gye Ok Yi. 2010. Changes and Growth among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Child-Rearing Experiences of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6(4): 137-163.
- Hastings, R. P., A. Beck, and C. Hill. 2005. Positive Contributions Made by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Family: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9(2): 155-165.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irst, M. and S. Baldwin. 1994. Unequal Opportunities: Growing up Disabled. *HM Stationery Office*.
- Kaufman, C. E., J. Beals, C. M. Mitchell, P. Lemaster, A. Fickenscher, and The Pathways of Choice and Healthy Ways Project Teams. 2004. Stress, Trauma, and Risky Sexual Behaviour among American Indians in Young Adulthood. *Culture, Health & Sexuality*. 6(4): 301-318.
- Kim, Eun Seo and Seung Hui Park. 2007. Mothers' Perception of Positive Effects of Rearing a Child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the Their Families.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3(4): 263-289.
- Kim, Jae Yeob. 2010. *TSL Family Therapy and Family Welfare*. SoYa.
- Kim, Jin Suk. 2015. A Qualitative Meta-Synthesis Study on Caregiving Experience Among Korean Mother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7(2): 463-490.
- Kim, Ki Ryong, Kyung Sook Kang and Myong Hee Lee. 2016. Current Status of Use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Support Services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5(4): 205-229.
- Kim, Mi Ok, Hyun Jung Park, and Eun Sil Yi. 2016. The Relationship of Positive Perceptions and Parenting Burden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Korea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47(2): 309-330.
- Kim, Su Jeong.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Perception of Positive Contributions made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5: 41-72.
- Kim, Su Jeong. 2013. The Effects of Parent's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Family Adapt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4): 79-101.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7. *The Statistics for Disability 2017*.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 Lee, Ae Ran, Sun Woo Hong, Soo Ji Kim, and Se Jin Ju. 2010. Life Transit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6): 808-819.
- Lee, H. S., D. K. Kim, and J. H. Kim. 2006. Stress in Caregivers of Demented People in Korea: A Modification of Pearlin and Colleagues' Str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8): 784-791.
- Lee, Ji Su. 2008. An Analysis of the Image of the Study on the Parenting Burden and Parents' Service Needs in the Families of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8(8): 71-100.
- Montgomery, S. A. and M. Asberg. 1979. A New Depression Scale Designed to be Sensitive to Chang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4): 382-389.
- Morrison A. P. and A. A. Wells. 2003. Comparison of Metacognitions in Patients with Hallucinations, Delusions, Panic Disorder, and Non-patient Controls. *Behavior*

- Research and Therapy*. 41(2): 251-256.
- Mount, N. and G. Dillon. 2014. Parents' Experiences of Living with an Adolescent Diagnosed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31(4): 72-81.
- Mukaka, M. M. 2012. A Guide to Appropriate Use of Correlation Coefficient in Medical Research. *Malawi Medical Journal*. 24(3): 69-71.
- Neria Y, B. E. Jromet, S. Sievers, J. Lavelle, and L. J. Fochtmann. 2002. Trauma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sychosis: Findings from a First-admission Cohor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246-251.
- Padden, C. and J. E. James. 2017. Stress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Autism Spectrum Disorder: A Comparison Involving Physiological Indicators and Parent Self-Report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29(4): 567-586.
- Park, Jong Yeob and Hui Taeg Yang. 2013. Reconstruction of Coping System Change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Children's Life Cour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41: 54-94.
- Park, Seo Jeong and Yong Guk Joo 2014. Narrative Inquiry into Parenting and Growth Experiences of Mothers with Children with Asperger's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2): 207-231.
- Park, Seon Won.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giving Burden of a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 on Marital Conflict: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i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 594-610.
- Pickett, S. A., J. A. Cook, B. J. Cohler, and M. L. Solomon. 1997. Positive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Impact of Severe Mental Illness and Caregiving Burd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220-229.
- Powell, S., R. Rosner, W. Butollo, R. G. Tedeschi, and L. G. Calhoun. 2003. Posttraumatic Growth after War: A Study with Former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in Sarajevo.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1): 71-83.
- Reinhard, S. C., G. D. Gubman, A. V. Horwitz, and S. Minsky. 1994. Burden Assessment Scale for Families of the Seriously Mentally Ill.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7(3): 261-269.
- Schwartz, C. and R. Gidron. 2002. Parents of Mentally Ill Adult Children Living at Home Rewards of Caregiving. *Health & Social Work*. 27(2): 145-154.
- Singh, P., S. Ghosh, and S. Nandi. 2017. Subjective Burden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Indi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7(10): 3097-3111.
- So, Soog Yeong and Jeong Rag Son. 2013. Effects of Positive-Psychotherapy on Depressi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2): 95-107.
- Song, Seung Hun, Hong Seock Lee, Joon Ho Park, and Kyo Heon Kim. 200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4(1): 193-214.
- Taunt, H. M. and Richard P. Hastings. 2002. Positive Impac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ir Families: A Preliminary Study.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7(4): 410-420.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y Inquiry*. 15(1): 1-18.
- Thornton, A. A. and M. A. Perez.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Prostate Cancer Survivors and Their Partners. *Psycho-Oncology: Journal of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Cancer*. 15(4): 285-296.
- Trute, B. and D. Hiebert-Murphy. 2002. Family Adjustment to Childhood Developmental Disability: A Measure of Parent Appraisal of Family Impac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7(3): 271-280.
- Trute, B., D. Hiebert-Murphy, and K. Levine. 2007. Parental Appraisal of the Family Impact of Childhood Developmental Disability: Times of Sadness and Times of Jo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2(1): 1-9.

- Turner-Crowson, Judy and Jan Wallcraft. 2002. The Recovery Vision for Mental Health Services and Research: A British Perspective.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5(3): 245-254.
- Wenzlaff, R. M., D. M. Wegner, and D. W. Roper. 1988. Depression and Mental Control: The Resurgence of Unwanted Negative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882-892.
- Winefield, H. R. and E. J. Harvey. 1994. Needs of Family Caregivers in Chronic Schizophrenics. *Schizophrenic Bulletin*. 20: 557-566.
- Wolf, L., S. Fisman, D. Ellison, and T. Freeman. 1998. Effect of Sibling Perception of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in Sibling Dyads with One Disabled Chil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12): 1317-1325.
- Yang, Hee Taek and Jong Yeap Park. 2013. Qualitative Research of Mother's Nurturing Experienc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1(21): 43-68.
- Yang, Sook Me. 2017. Family Support Social Work Practice for the Handicapped People and Empowerment. Yang Seo Won.
- Yoon, Myeong Sook and Eun A Park. 2012. Influencing Factors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Family of Adult with Mental Disord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8(12): 201-228.
- Yoon, Myeong Sook and Eun Sil Yi. 2014.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Disabilities Accept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People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6(26): 55-74.
- You, Young Jun, Eun Ryoung Paik, Myoung Hee Lee, and Bog Cheon Choi. 2011. A Study on Family Burden and Needs for Family Support for Praen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1): 209-234.
- Zhang, Wei, Ting Ting Yan, K. L. Barriball, A. E. While, and Xiao Hong Liu. 2015. Post-traumatic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 Phenomenological Study. *Autism*. 19(1): 29-37.
- Zoellner, T. and A. Maercker.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기룡, 강경숙, 이명희. 2016.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특수교육*. 15(4): 205-229.
- 김미옥, 박현정, 이은실. 2016.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과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성 인식의 관계: 사회참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309-330.
- 김수정. 2013. 장애자녀 양육경험 인식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재활복지*. 17(4): 79-101.
- 김수정. 2012.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과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친 긍정적 기여에 대한 부모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41-72.
- 김은서, 박승희. 2007. 정신지체 자녀 양육이 가족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263-289.
- 김재엽. 2010. TSL 가족치료와 가족복지. *소아*.
-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 박서정, 주용국. 2014. 아스퍼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과 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재활심리연구*. 21(2): 207-231.
- 박선원. 2017.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594-610.
- 박종엽, 양희택. 2013.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처양태 변화의 재구성. *비판사회 정책*. 41: 54-94.
- 소숙영, 손정락. 2013. 긍정 심리치료가 발달 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21(2): 95-107.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양희택, 박종엽. 2013.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1(21): 43-68.
- 양숙미. 2017. 장애인가족지원과 역량강화. *양서원*.
- 유영준, 이명희, 백은령, 최복천. 2011.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 의 양육부담 및 가족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10(1): 209-234.
- 윤명숙, 박은아. 2012. 정신장애인 가족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8: 201-228.
- 윤명숙, 이은실. 2014.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26(26): 55-74.
- 한성희, 박혜준, 이규옥. 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37-163.
- 이애란, 홍선우, 김지수, 주세진. 2010. 자폐성장애 아동 어머니의 삶의 전환 과정. 대한 간호학회지. 40(6): 808-819.
- 이지수. 2008. 장애아동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및 서비스 욕구. 한국장애인복지학. 8: 71-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2017 장애인 통계.

Received: Aug. 9, 2018 / Revised: Oct. 2, 2018 / Accepted: Oct. 10, 2018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과 관계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경험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족 영향(Family Impact)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경기·인천 지역에 있는 복지관 또는 치료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어머니 200명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인 양육 부담과 외상 후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가족 영향은 양육부담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가족 영향은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이 단순히 양육부담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의 강화를 통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어머니, 양육부담, 외상 후 성장, 가족영향

Profiles **Soo Kyung Park** : She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Master and MSW Ph.D. 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Yonsei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field is people with disability. She published “Disability and Integration” and recent research is about Transition to adulthood for developmental disability(psk2016@yonsei.ac.kr).

Sung Min Lee : He is 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Yonsei University as a Ph.D. course. His major concern is mother of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o is in stress(good.oidos@gmail.com).

Jeong Ha Lee : She is 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Yonsei University as a master degree course(sw_passion@naver.com).

So Ri Kim : She is 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Yonsei University as a master degree course(rlathfl05@naver.com).

